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책을 펼친 친구에게, 환영해요! 지금부터 당신은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앨리스라는 호기심 많은 소녀가 꾸벅꾸벅 졸다가 빠져든 아주 이상하고 신기한 꿈에 관한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가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고기를 보거나, 갑자기 내 몸이 아주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처럼요. 앨리스가 가게 될 '이상한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알던 세상과 조금 달라요. 시간에 쫓겨 허둥대는 토끼가 말을 하고, 히죽히죽 웃는 고양이 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여왕님은 살아있는 홍학으로 크로케 경기를 한답니다.

그러니 책을 읽다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일만 생기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이상한 나라의 매력이니깐요. 이 이야기에는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저 앨리스의 눈을 통해 이 놀라운 세계를 마음껏 상상하고 즐기면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앨리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요? 앨리스의 손을 잡고 저 아래, 깊고 깊은 토끼 굴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봐요. 아주 아주 이상하고 신기한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친구들

앨리스가 꿈속에서 만나는 신기하고 이상한 친구들을 미리 만나볼까요? 누가 누구인지 기억해두면 앨리스의 여행을 따라가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캐릭터 (Character)	특징 (Description)	앨리스가 만난 곳 (Where Alice Met Them)
흰토끼 (White Rabbit)	빨간 눈에 조끼를 입고, 늘 "늦었어!"를 외치며 시간에 쫓기는 토끼	제1장: 토끼 굴 입구
애벌레 (Caterpillar)	커다란 버섯 위에서 물담배를 피우며 알쏭달쏭한 질문을 하는 벌레	제5장: 숲속
체셔 고양이 (Cheshire Cat)	히죽히죽 웃으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비로운 고양이	제6장: 공작부인의 집 근처
모자장수 (Mad Hatter)	3월 토끼와 함께 끝나지 않는 정신없는 다과회를 여는 엉뚱한 모자 장수	제7장: 3월 토끼의 집 앞
3월 토끼 (March Hare)	모자장수의 단짝으로, 언제나 찻잔을 들고 있는 토끼	제7장: 3월 토끼의 집 앞
하트 여왕 (Queen of Hearts)	"저 자의 목을 쳐라!"가 입버릇인, 화를 잘 내는 무서운 여왕	제8장: 아름다운 정원
그리폰과 가짜 거북	옛날 학교 이야기를 하며 슬프게 우는 신기한 동물들	제9장: 바닷가

제1장: 토끼 굴 속으로

나른한 오후였어요.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강둑에 앉아 있었지만,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했죠.

언니가 읽는 책에는 그림 하나, 대화 한 줄 없었거든요. '그림도 없는 책이 무슨 재미람.'

앨리스는 그렇게 생각하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분홍색 눈을 가진 흰토끼 한 마리가 강충강충 뛰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뭐, 토끼가 지나가는 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토끼는 조끼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 이런! 이런! 내가 너무 늦겠는걸!"

말하는 토끼라니! 조끼를 입고 시계까지 가진 토끼라니! 앨리스는 잠이 확 달아났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 토끼를 뒤쫓아갔죠. 토끼는 울타리 밑에 있는 커다란 토끼 굴 안으로 쏙 하고 사라졌고, 앨리스는 망설임 틈도 없이 그 뒤를 따라 뛰어들었어요.

굴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 같았어요. 앨리스는 아주 천천히, 빙글빙글 돌며 아래로,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주변을 둘러볼 시간도 충분했어요. 벽에는 선반과 책장들이 있었고, 지도와 그림들도 걸려 있었죠. 앨리스는 선반 위에서 오렌지 마멀레이드 잼이 담긴 병 하나를 집어 들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텅 비어 있었죠. 앨리스는 병을 그냥 아래로 던져버리면 누군가 맞을까 봐 걱정되어, 지나가는 다른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어요.

"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까? 이대로 지구 중심을 뚫고 반대편으로 나가게 되는 건 아닐까?"

저녁밥 시간까지는 돌아갈 수 있겠지?"

한참을 슈우우욱 떨어지던 앨리스는 마침내 마른 나뭇잎과 잔가지들이 쌓인 더미 위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다행히 하나도 아프지 않았죠. 앞을 보니 긴 복도가 나왔고, 저 멀리 아까 그 흰토끼가 달려가고 있었어요. "오, 내 귀와 콧수염아! 정말 늦었잖아!" 토끼는 그렇게 외치며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다시 토끼를 뒤쫓았어요. 그러자 수많은 문이 달린 커다란 방이 나타났어요. 모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방 한가운데에는 다리가 세 개 달린 유리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아주 작은 황금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앨리스는 열쇠로 모든 문을 열어보았지만, 너무 작아서 맞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커튼 뒤에 숨겨진 아주 작은 문을 발견했어요. 높이가 40센티미터도 안 되는 작은 문이었죠. 황금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자, 찰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어요! 앨리스는 무릎을 꿇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곳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시원한 분수와 알록달록한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었죠. 앨리스는 그 정원으로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머리조차 들어가지 않는 작은 문이었어요.

실망한 앨리스는 다시 유리 탁자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탁자 위에 작은 병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까는 분명히 없었는데 말이죠. 병목에는 '나를 마세요(DRINK ME)'라고 적힌 종이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병을 한 모금 마셨어요. 체리 타르트와 파인애플, 구운 칠면조 맛이 나는 아주 맛있는 음료였죠.

그러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앨리스의 몸이 스르르, 인형처럼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겨우 25센티미터쯤 되었을까요? 앨리스는 기뻐하며 작은 문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런! 정원으로 가는 열쇠를 유리 탁자 위에 그대로 두고 온 게 아니겠어요? 너무 작아진 앨리스는 이제 탁자 위로 손이 닿지 않았어요. 앨리스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탁자 밑에서 '나를 먹어요(EAT ME)'라고 적힌 작은 케이크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래, 이 케이크를 먹으면 몸이 다시 커질지도 몰라. 그러면 열쇠를 집을 수 있겠지. 아니면 더 작아져서 문틈으로 기어 나갈 수도 있을 거고!" 앨리스는 희망을 품고 케이크를 한입 베어 물었어요.

제2장: 눈물 웅덩이

"어느 쪽일까? 어느 쪽으로 변할까?" 앨리스는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자신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아무 변화도 없었죠. 앨리스는 실망해서 케이크를 전부 먹어치웠어요.

그러자 갑자기 앨리스의 몸이 거대하게 커지기 시작했어요! 발이 저 아래로 사라지고, 머리는 천장에 쿵 하고 부딪혔죠. 앨리스는 급하게 황금 열쇠를 집었지만, 이제는 몸이 너무 커져서 작은 문을 도저히 통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너무 커졌다가, 너무 작아졌다가. 대체 나는 누구인 걸까?" 앨리스는 다시 서러워져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려 방바닥에는 커다란 웅덩이가 생겼답니다.

그때, 흰토끼가 다시 나타났어요. 하얀 장갑과 커다란 부채를 들고 있었죠. 토끼는 앨리스를 보더니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고는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앨리스는 바닥에 떨어진 부채를 주워 들고 부치기 시작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상한 일만 생기는 거지? 어제는 모든 게 평범했는데. 혹시 내가 밤사이에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건 아닐까?" 앨리스는 자신이 아는 다른 친구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았지만,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부채질을 하는 동안, 앨리스는 자신의 몸이 다시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부채 때문이었죠! 앨리스는 부채를 얼른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하마터면 촛불처럼 훅 하고 꺼져버릴 뻔했지 뭐예요.

몸은 다시 작아졌지만, 앨리스는 곧 더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바로 자신이 흘린 눈물로 만들어진 소금물 웅덩이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앨리스는 침범거리며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 옆에서 무언가 침범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다코끼리나 하마인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 생쥐 한 마리였어요. 생쥐 역시 눈물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죠.

"오, 생쥐님! 혹시 여기서 나가는 길을 아시나요?" 앨리스가 소리쳤지만, 생쥐는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앨리스는 생쥐가 프랑스에서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배운 프랑스어 실력을 뽐내기로 했어요. "고양이는 어디에 있나요(Où est ma chatte)?" 그 말을 듣자 생쥐가 물 위로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어요.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다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고양이를 싫어한다고!" 앨리스는 깜짝 놀라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집 고양이 디나는 아주 착한데... 아, 혹시 개를 좋아하시나요?" 하지만 생쥐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도 싫어하는 모양이었어요. 결국 둘은 아무 말 없이 함께 물을 향해 헤엄쳤어요. 웅덩이에는 오리, 도도새, 앵무새 같은 다른 동물들도 잔뜩 빠져 있었답니다.

제3장: 이상한 경주와 작은 손님

눈물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동물들은 모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몸을 말리기 위해 도도새가 좋은 생각을 내놓았죠. 바로 '코커스 경주'를 하자는 거였어요. 경주로는 동그랗게 그리고, 각자 아무 데나 서 있다가 "시작!" 소리와 함께 아무 방향으로나 달리는 이상한 경주였죠. 30분쯤 달리자 모두 몸이 보송보송해졌어요. 도도새는 경주가 끝났다고 선언하며, 모두가 우승자이니 모두에게 상을 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동물들은 앨리스를 둘러싸고 "상! 상!" 하고 외쳤어요. 앨리스는 주머니를 뒤져 사탕 한 봉지를 꺼내 동물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그러자 동물들은 "그런데 너는 상이 없잖아!"라고 말했고, 도도새는 앨리스의 주머니에 있던 골무를 꺼내 앨리스에게 상으로 주었답니다. 정말 이상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경주였죠.

모두가 골무를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을 때, 앨리스는 자기도 모르게 말했어요. "저희 집 고양이 디나 얘기를 해줄까요? 디나는 쥐를 정말 잘 잡아요! 그리고 새를 보면..." 앨리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물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앨리스 혼자만 남게 되었죠.

앨리스가 외로워서 울고 있을 때, 다시 흰토끼가 나타났어요. 토끼는 잃어버린 장갑과 부채를 찾고 있었죠. 토끼는 앨리스를 보더니 자기 집 하녀인 '메리 앤'으로 착각하고 소리쳤어요. "메리 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어서 집에 가서 내 장갑이랑 부채 좀 가져오너라! 어서!" 앨리스는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토끼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곧 '흰토끼'라고 쓰인 명패가 달린 예쁜 집을 발견했죠. 앨리스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장갑과 부채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침실 탁자 위에서 또 다른 작은 병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앨리스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마셨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몸이 다시 거대하게 커져서 집에 꼭 끼고 말았어요! 한쪽 팔은 창문 밖으로 튀어나오고, 한쪽 다리는 굴뚝으로 솟아났죠. 밖에서 기다리던 흰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토끼는 정원사인 도마뱀 빌을 불러 굴뚝으로 들어가 보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앨리스가 굴뚝으로 솟아난 발을 뺄 차버리자, 빌은 송 하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흰토끼와 다른 동물들은 이제 조약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온 조약돌들은 신기하게도 작은 케이크로 변했어요. 앨리스는 케이크 하나를 집어 먹었고, 다시 몸이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앨리스는 얼른 집 밖으로 뛰쳐나와 숲속으로 도망쳤답니다.

제4장: 애벌레의 조언과 돼지와 후추

앨리스는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숲속을 헤매던 앨리스는 커다란 버섯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버섯 위에는 팔짱을 낀 채 커다란 물담배를 피우고 있는 파란 애벌레가 앉아 있었어요.

애벌레는 한참 동안 앨리스를 쳐다보더니,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넌... 누구지?" 앨리스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땐 분명히 저였는데, 그 뒤로 몇 번이나 모습이 바뀌었거든요." 애벌레는 통명스럽게 말했어요. "설명해 봐." 앨리스는 오늘 겪은 이상한 일들을 설명하려 했지만, 자기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아 황설수설하고 말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애벌레는 버섯에서 내려오며 말했어요. "한쪽을 먹으면 키가 커지고, 다른 쪽을 먹으면 키가 작아질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애벌레는 사라져 버렸죠. 앨리스는 버섯의 양쪽 끝을 한 조각씩 떼어냈어요. 오른쪽 조각을 먹자 턱이 발에 달을 만큼 키가 작아졌고, 왼쪽 조각을 먹자 목이 기린처럼 길어져서 나무 꼭대기까지 닿았어요. 앨리스는 두 조각을 번갈아 먹으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키를 원래대로 되돌렸답니다.

다시 원래 키를 찾은 앨리스는 숲속에서 작은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집 앞에서 하인이 개구리 얼굴을 한 다른 하인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있었죠. 앨리스가 문을 두드리자, 하인은 여왕님의 크로케 경기에 초대받은 편지라며, 안이 아주 시끄러우니 들어가도 소용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앨리스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은 온통 연기로 자욱했고, 공작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주방장은 요리를 하며 후추를 마구 뿌려댔고, 그 때문에 아기와 공작부인은 계속해서 에취! 에취! 재채기를 하고 있었죠. 바닥에서는 커다란 고양이가 히죽히죽 웃고 있었어요.

"저 고양이는 왜 저렇게 웃고 있죠?" 앨리스가 묻자, 공작부인이 대답했어요. "체서 고양이라서 그럴지." 공작부인은 아기를 앨리스에게 확 던지더니, 여왕의 크로케 경기에 가야 한다며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재채기하는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기의 얼굴이 점점 이상하게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코는 돼지 코처럼 변하고, 눈은 작아지고... 아기는 어느새 꿀꿀거리는 아기 돼지가 되어 있었어요! 앨리스는 돼지를 바닥에 내려주었고, 돼지는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나뭇가지 위에서 체서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래?" 앨리스가 묻자, 고양이가 대답했어요.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렸지. 이쪽으로 가면 모자장수가 살고, 저쪽으로 가면 3월 토끼가 살아. 둘 다 미쳤지만."

"미친 사람들에게 가고 싶진 않은데." 앨리스가 말하자, 고양이가 히죽 웃으며 말했어요. "어쩔

수 없어. 여긴 모두 미쳤거든. 나도 미쳤고, 너도 미쳤어." 그 말을 남기고 체셔 고양이는 꼬리부터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허벅지 웃는 미소만 공중에 남기고 스르르 사라져 버렸답니다. 엘리스는 3월 토끼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제5장: 정신없는 다과회와 여왕의 크로케

엘리스는 곧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열리고 있는 다과회를 발견했어요. 3월 토끼와 모자장수가 거울잠쥐를 사이에 앉히고 차를 마시고 있었죠. 엘리스가 다가가자 그들은 소리쳤어요. "자리 없어! 자리 없어!" 하지만 긴 테이블에는 빈자리가 아주 많았어요. 엘리스는 개의치 않고 테이블 끝에 앉았어요.

"머리카락 좀 자르지 그래." 모자장수가 뜬금없이 말했어요. 엘리스는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죠. 모자장수는 엘리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까마귀와 책상이 왜 비슷하게?" 엘리스는 재미있는 수수께끼라고 생각하며 답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모자장수와 3월 토끼는 엘리스에게 답을 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말을 하거나, 거울잠쥐를 찌르전자에 집어넣으려고 했죠. 모자장수는 자신의 시계가 이틀이나 틀렸다고 버터를 발라보기도 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의 시간은 언제나 오후 6시, 즉 티타임에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다과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엘리스는 그들의 무례함에 질려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엘리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숲속에서 문이 달린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처음 떨어졌던 그 긴 복도가 다시 나타났어요. 엘리스는 황금 열쇠를 잡고, 버섯 조각을 먹어 몸을 작게 만든 뒤, 마침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갔답니다! 정원에는 하얀 장미 덩굴이 있었는데, 카드 병정 세 명이 하얀 장미를 빨갇게 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트 여왕님이 하얀 장미를 싫어해서, 들리기 전에 서둘러 색칠하는 중이라고 했죠.

바로 그때, 하트 왕과 여왕, 그리고 신하들이 행진해왔어요.

하트 여왕은 장미 덩굴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이게 뭐냐! 감히 하얀 장미를 심다니! 저자들의 목을 쳐라!" 병정들은 엘리스 뒤로 쫓르르 숨었어요. 여왕은 엘리스를 보더니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지?" 엘리스가 용감하게 대답하자, 여왕은 엘리스에게 크로케 경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크로케 경기는 정말 이상했어요. 공은 살아있는 고슴도치였고, 망치는 살아있는 홍학이었으며, 골문은 몸을 구부린 카드 병정들이었죠. 선수들은 모두 자기 마음대로 경기를 했어요. 고슴도치들은 도망가고, 홍학들은 날아가 버리고, 병정들은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여왕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저자의 목을 쳐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진짜로 목이 잘리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왕이 뒤에서 조용히 모두를 용서해주었기 때문이죠. 정말 정신없고 시끄러운 경기였답니다.

제6장: 가짜 거북의 이야기와 바닷가재 춤

혼란스러운 크로케 경기 중에, 체셔 고양이가 허공에 스르르 나타났어요. 왕은 고양이에게 뽀뽀하려 했지만, 고양이는 거절했죠. 화가 난 여왕은 "저 고양이의 목을 쳐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사형집행인은 난감해했어요. 목은 없고 머리만 있는 고양이의 목을 어떻게 쳐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모두가 이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사이, 고양이는 다시 사라져 버렸어요. 여왕은 엘리스에게 그리폰이라는 신기한 동물을 타고 가짜 거북을 만나러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리폰은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를 가진 동물이었죠. 그리폰은 엘리스를 데리고 바닷가로 날아갔어요.

저 멀리 바위 위에서,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슬프게 앉아 있었어요. 눈은 어찌나 큰지,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죠. 그리폰이 설명해줬어요. "저게 가짜 거북이야. 진짜 거북이 수프가 만들어지는 애지."

가짜 거북은 깊은 한숨을 푸우 쉬며 자신의 옛날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에 나도 진짜

거북이었을 때가 있었지. 바닷속 학교에 다녔단다." 엘리스는 바닷속 학교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엘리스가 묻자, 가짜 거북이 대답했어요. "음, 여러 가지를 배웠지. 나는 바닷속 학교에서 '조개껍데기 모으기'랑 '해초에 숨기'를 배웠어. 아, '거품 불기' 시간도 있었고, '빙빙 돌기'와 '뒤틀기' 같은 것도 배웠지." 가짜 거북이 말하는 과목들은 하나같이 이상하고 웃긴 이름들이었어요. 엘리스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죠.

가짜 거북은 자신의 학교생활을 떠올리며 더욱 슬프게 울었어요. 그리폰은 지겹다는 듯이 말했죠. "자, 이제 '바닷가재 카드리유' 춤이나 보여주자!"

가짜 거북은 눈물을 닦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닷가재와 함께 춤을 추지 않을래? 바다 멀리 던져질 거야!" 그리폰과 가짜 거북은 바닷가재와 춤추는 시늉을 하며 광충광충 뛰었어요. 앞으로 갔다가 파트너를 바꾸고, 바닷가재를 바다로 던지는 흉내를 내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춤이었죠.

춤이 끝나자, 저 멀리서 "재판 시작!"이라는 외침이 들려왔어요. 그리폰은 엘리스의 손을 잡고 소리쳤어요. "가자, 어서!" 엘리스는 가짜 거북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 한 채 재판정으로 달려갔답니다.

제7장: 재판과 엘리스의 증언

엘리스가 도착한 재판정은 크로케 경기장과 같은 곳이었어요. 하트 왕과 여왕이 왕좌에 앉아 있었고, 배심원석에는 동물과 카드들이 앉아 있었죠. 피고석에는 하트 잭이 쇠사슬에 묶여 서 있었어요. 죄목은 '하트 여왕이 만든 타르트를 훔친 죄'였어요.

재판은 처음부터 엉망진창이었어요. 흰토끼가 고소장을 읽었지만, 그건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시였죠. 왕은 배심원들에게 평결을 내리라고 했지만, 흰토끼는 증인들을 먼저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첫 번째 증인은 모자장수였어요. 그는 찻잔과 빵 조각을 든 채로 증인석에 섰죠. 왕은 모자장수에게 아는 것을 모두 말하라고 했지만, 모자장수는 횡설수설하며 다과회 이야기만 늘어놓았어요. 여왕은 모자장수의 말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자의 목을 쳐라!"고 외쳤지만, 모자장수는 혼란을 틈타 도망쳐 버렸죠.

두 번째 증인은 공작부인의 주방장이었어요. 그녀는 손에 후추통을 들고 있었죠. 왕이 무엇으로 타르트를 만드냐고 묻자, 주방장은 "후추요."라고만 대답하고 사라졌어요.

그 사이, 엘리스는 자신의 몸이 다시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버섯 효과가 아직 남아있었나 봐요. 바로 그때, 흰토끼가 외쳤어요. "다음 증인, 엘리스!"

엘리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그만 치맛자락으로 배심원석을 쳐서 배심원들을 모두 쏟아버렸어요. 엘리스는 서둘러 그들을 주워 제자리에 앉혔죠. 왕은 엘리스에게 타르트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엘리스가 대답했어요.

왕은 잠시 고민하더니, 법정에서 '키가 1킬로미터 이상인 자는 법정을 떠나야 한다'는 이상한 규칙을 찾아냈어요. 엘리스는 자기가 1킬로미터가 아니라고 반박했죠.

재판이 막다른 길에 이르자, 왕은 흰토끼가 주운 편지를 증거로 제시했어요. 하지만 그 편지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시였어요. 왕은 그 시가 잭의 필체와 비슷하다며 잭이 범인이라고 몰아갔어요.

"선고부터 하고 평결은 나중에 하라!" 여왕이 소리쳤어요.

그때, 엘리스가 참지 못하고 외쳤어요. "말도 안 돼요! 선고부터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왕은 얼굴이 시뻘게져서 소리쳤어요. "입 닥치지 못할까!"

하지만 엘리스는 이제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몸이 원래 크기로 돌아와 용기가 솟았거든요. 엘리스는 당당하게 외쳤어요.

"너희는 그냥 카드 한 뭉치일 뿐이야!"

그 순간, 모든 카드들이 공중으로 와르르 솟구치더니 엘리스에게 비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앨리스는 비명을 지르며 카드를 펼쳐내려 애썼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앨리스는 언니의 무릎을 베고 강독에 누워 있었어요. 언니는 앨리스의 얼굴에 떨어진 나뭇잎들을 부드럽게 떼어주고 있었죠.

"언니, 나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꿈을 꿔!"

앨리스는 언니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흰토끼, 눈물 웅덩이, 정신없는 다과회, 그리고 무서운 하트 여왕까지요. 이야기가 끝나자 언니는 앨리스의 뺨에 뽀뽀하며 말했어요. "정말 이상한 꿈이었구나, 앨리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란다."

앨리스는 집으로 달려가면서도 계속해서 꿈속의 이상한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 모든 신기한 생물들과 이상한 사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이지, 아주 아주 이상하고도 멋진 꿈이었답니다.

참고 자료

1.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루이스 캐럴 - 교보문고,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0802391> 2. 환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오피니언뉴스,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5> 3.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3%81%ED%95%9C_%EB%82%98%EB%9D%BC%EC%9D%98_%EC%95%A8%EB%A6%AC%EC%8A%A4 4.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D%B4%EC%83%81%ED%95%9C%20%EB%82%98%EB%9D%BC%EC%9D%98%20%EC%95%A8%EB%A6%AC%EC%8A%A4> 5.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성숙(mature)의 의미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everydayeve7/46>